

##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 심의총평

문예예술교육을 통해 교육의 가교로서의 재단간의 연계를 실현하고  
도약가능 리정하면서 본 사업의 의미가 클 듯합니다. 물론 권력리  
구분 범주, 시행일정위에서 문예예술을 정할 수 있는 미시적인  
교구법을 극강한대로 추구해서, 보다 더 시민들과 그들의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의지나 노력도 본 사업의 중요한 의미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본 사업의 이후 방향성과 구분, 체계적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체계나 구분에 대한 의제 외에 관철적은 문예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동시대에 타치는 문예적 관행과 예술성치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논쟁도 매우 활발해 보입니다. 여차히 쉬운, 장려성의  
대중적 추방에 몰입된 프로그램과 기획들이, 지역현황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꼭 그려야 하는지 비평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결과에 무관하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사람들, 그들을  
메리세팅할 수 있는 다각화된 지체가 활용하기 기획되고  
살행되어 사람들 함께 살리고 키워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보일거라 합니다.

심의위원 서명

백정은 (인)

서명

김공주 (인)

서명

오지호 (인)